

게임빌, 코인원에 나홀로 '맑음'... 컴투스·펄어비스 '흐림'

게임 3사 3분기 실적 희비

게임빌, 코인원 덕에 영업익 급증
컴투스·펄어비스 모두 실적 부진
신사업 미반영 영향... 신작 기대

게임빌, 컴투스, 펄어비스가 올해 3분기에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을 이끌고 있는 게임빌은 올해 계속된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 모멘텀을 만들었다. 반면 컴투스와 펄어비스는 신사업 온기 미반영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갔다.

◆게임업계, 실적 온도차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이번 3분기 게임빌은 매출 459억원, 영업이익 21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9.7% 늘어났다.



반면 컴투스와 펄어비스는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컴투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131억원, 129억원, 60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1% 줄어 들었다. 펄어비스는 3분기 매출 964억원, 영업이익 1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5%, 74.8% 감소한 수치다.

게임빌과 컴투스·펄어비스의 실적 차이 상반된 이유는 신사업의 온기 반영 영

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빌은 자회사 '코인원'을 필두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사업을 안정화시키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게임빌은 앞으로 글로벌 게임 전문 플랫폼인 '하이브(Hive)'에 블록체인 전용 SDK를 탑재하고, 자체 토큰(C2X, 가칭)도 발행할 예정이다. 연간 글로벌 액티브 유저 1억명 이상을 보유한 '하이브'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과 오픈 플랫폼 얼라이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컴투스는 현재 메타버스 전문사들을 인수하며 관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컴투스는 위지웍스튜디오, 애니모카 브랜드, 캔디 디지털, 더 샌드박스 등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미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시장에서는 컴투스의 신사업 투자가 이번 3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펄어비스도 메타버스 신작 '도깨비'를 지난 8월 '게임스컴'에서 공개하긴 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 중이라 이번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기술 장착한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게임사들은 향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작을 출시하며 실적 모멘텀에 기대감을 보일 전망이다.

게임빌은 내년 1분기 '크로매틱스 울: AFK 레이드'를 비롯해 캐주얼한 게임성을 갖춘 '프로젝트 MR(가칭)', 게임빌의 대표 IP '게임빌프로야구'도 블록체인 기술에 NFT를 접목하여 내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 RPG, 캐주얼,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개발 게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과 연대해 라인업을 확대해 새롭게 떠

오른 P2E(Play to Earn) 시장을 빠르게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컴투스는 2022년 출시 예정인 기대작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전 세계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 세계관 기반의 MMORPG로, 이용자들에게 모험, 전투와 같은 즐거움은 물론 게임 진행 중 획득한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과 게임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은 8월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10월 FGT(Focus Group Test)를 진행했다. 중국의 다양한 마켓과 기기에서 게임이 원활히 구동되는지 11월5일부터 12일까지 기술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SK C&C, NS홈쇼핑 IT인프라 운영 맡는다

'IT 인프라 아웃소싱' 계약 체결
단계별 클라우드 환경 구축
5년 운영... 디지털 전환 추진

SK(주) C&C가 NS홈쇼핑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SK(주) C&C는 NS홈쇼핑과 'IT 인프라 아웃소싱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주) C&C는 2026년까지 5년간 NS홈쇼핑의 IT 인프라를 총괄 운영하며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한다.

NS홈쇼핑은 2001년 식품전문 TV홈쇼핑으로 출범한 회사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 IT 인프라 운영 환경 확보는 물론 고객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이지 쇼핑과 모바일 퍼스트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다.

SK(주) C&C는 먼저 NS홈쇼핑의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고객의 빠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오픈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닉스 운영 체제를 리눅스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U2L(Unix to Linux)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춰 인프라 운

영을 자동화·지능화하고, 24x365 실시간 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오퍼레이션 서비스'를 구현한다.

인프라 운영 자동화 솔루션 '오피메이트'를 장착해 서버·보안 일일 점검은 물론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해 사람이 범하는 오류를 차단한다.

특판 행사 등 빅이벤트는 물론 대량 거래도 사전 예측해 선제적인 인프라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현장 요청에 따른 인프라 구성 및 변경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스티브 키퍼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왼쪽)이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방문해 카허 카점 한국지엠 사장 등 임직원들과 함께 신축 도장공장 등 신규 설비에 대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韓 찾은 GM 부사장 "한국지엠 성공 자신"

'GM 2인자' 한국 사업장 방문
임원진 만나고 투자현황 점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2인자인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이 한국지엠의 성공을 자신했다.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10일 방한해 한국 내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노동조합 임원진과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박5일 일정을 시작했다. 11일에는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키퍼 사장은 GM 본사 내 의사결정 2인자로 평가된다.

키퍼 사장은 지난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청라주행시험장 등 한국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제품 시운전을 진행하며, 한국 사업장의 진행되고 있는 투자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키퍼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한국 사업장이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다. 또 키퍼 사장은 김성갑 급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특히 이날 보령공장과 GM의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생산을 시작할 창원공장을 방문해 올 상반기 완공된 신축 도장공장을 비롯해 차체 공장 등 신규 설비에 대한 준비 현황을 살폈다. 한국지엠 창원공

장은 현재 신형 CUV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신축 도장공장을 포함해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 등 기존 공장 내 신규 생산 설비 공사를 통해 연간 25만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CUV는 오는 2023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다.

키퍼 사장은 "창원공장에서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위해 공장 및 설비에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한국지엠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성공에 이어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제품으로 또 하나의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팀도 한국사업장의 흑자전환을 위해 이 프로젝트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키퍼 사장은 11일 2대주주 산업은행, 정부 관계자 등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국내 미디어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GM의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기업 전환 전략과 한국 사업장의 역할, 국내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전기차 배정 등 새로운 생산 계획 등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GM은 최근 전기차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에는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업 로고까지 바꿨다. /양성운 기자 ysw@



코나아이 코나모빌리티

제네시스에 OTA솔루션 공급

코나아이 계열사 '코나모빌리티'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에 커넥티드카 OTA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OTA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차에 탑재해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무선 통신을 활용해 통합제어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운전자보조 시스템 등 자동차의 주요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OTA 기능을 적용하면 A/S나 리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과 자동차 품질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을 줘 점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강준혁 기자

LGU+, 유니티코리아와 메타버스 '협력'

유니티 활용해 가상오피스 제작

LG유플러스는 유니티 코리아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의 '유니티(Unit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는 리얼타임 3D(RT3D) 콘텐츠 개발 플랫폼이다. 실시간 렌더링 엔진을 바탕으로 모바일, 메타버스, VR/AR/MR 등 다양한 영역/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니티를 활용해 내년 출시 예정인 가상오피스 서비스를 제작하고, 유니티코리아와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 분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상오피스란 재택근무 중 아바타를 가상공간에 출근시켜 동료들과 소통, 협업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과 유사한 경험을 느끼게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다. 비대면 근무 중에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드는 게 이 서비스의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다양한 영역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



김인숙 유니티 코리아 대표(왼쪽), 이상민 LG유플러스 기술 부문장이 LG유플러스 마곡사 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습 교육, 기술 자문,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 협업 등을 통해 메타버스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다양한 메타버스 형식의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과 사업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사내 유니티 전문가를 양성하고, 메타버스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기술력 내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